

◎ 도서관이 알아야 할 출판과 책 이야기 ◎



곱게 미친 사람들 이야기

- N.A. 바스베인스의 『젠틀 매드니스』 -



최성일*

제목이 알갭다, ‘곱게 미친 병(A Gentle Madness)’ 이라니. 달리 말하면, 이것은 애서광증(愛書狂症)이다. 이 책의 「용어 해설」에 ‘애서광(愛書狂, bibliomania)’의 풀이가

나와 있다. 그것은 “책을 좋아하다 못해 미치다 시피 한 상태” 혹은 그러한 ‘사람’을 일컫는”다. 책을 뜻하는 비블리오와 광기를 의미하는 마니아를 합친 말이다. 또한 그들은 수집가, 다시 말해 컬렉터다.

N.A. 바스베인스의 『젠틀 매드니스』 책, 그 유혹에 빠진 사람들』(표정훈·김연수·박중서 옮김, 뜨인돌, 2006)은 “지난 25세기에 걸쳐 인류 역사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책을 향한 열망’을 배경 삼아, 과거와 현재의 ‘애서가’와 ‘애서광’, 즉 책에 미친 사람들을 소개했다.” 바스베인스는 자신의 연구가 “책을 수집하려는 충동뿐만 아니라, 책 그 자체의 생명주기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자신이 들려줄 이야기의 주맥(主脈)을 이렇게 잡았다. “시대를 통틀어 다양하게 나타났던 이례적이고 열성적인 수집가들,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역사, 문학, 문화 전반에 관해 알고 있는 것들이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보존되기는 힘들었으리라는 것이다. 그 사로잡힌 영혼들의 열정과 헌신이야말로 내 이야기의 주제라 하겠다.”

2500년에 걸친 인류 문명사에서 명멸한 애서광들의 궤적을 훑다보니 책이 엄청 방대하다. 한국어판은 본문만 800쪽이 넘는다. 제1부는 책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의 역사적 연원을 추적하였고, 제2부에서는 최근 일어난 일들과 생존인물에게 초점을 맞춘다. 한국어판에 추가된 제3부는 용어해설·인명해설·찾아보기 등으로 이뤄져 있다. 한마디로 이 책은 애서광 열전이다. 책 모으기를 삶의 방식으로 삼았던 주요인물을 통해 고상한 광증에 시달린 사람들의 세계를 살짝 들여다본다.

민족과 위안을 얻은 유일한 장소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회원이었던 자비에르 말미에르(1809-1892)는 애써 모은 장서를 그의 고향 마을인 퐁탈리에르의 공공도서관에 기증했다. “자신의 책이 미래 세대의 많은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말미에르의 사례

* 출판평론가, robli@freechal.com

◎ 도서관이 알아야 할 출판과 책 이야기 ◎

깊은 면모는 그가 죽고 나서 유언장이 공개되자 더욱 빛났다. 말미에르는 프랑스 파리 센 강변 좌안의 헌책방거리를 거닐면서 누렸던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들을 기념하는 뜻으로 헌책방 주인들에게도 유산을 남겼다.

“나는 그 헌책방 주인들에게 1,000프랑을 남기는 바이다. 50명쯤 되는 착하고 정직한 그들이 이 돈으로 즐겁게 저녁 식사를 하면서 나를 기억해주시기를 바란다. 이는 생미셸 다리와 르와얌 다리 사이의 센 강변 좌안을 매일 거닐면서 지적으로 충만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다.”

1892년 11월 20일, 말미에르의 뜻을 받들어 파리의 고급 레스토랑 르 그랑 베푸에 헌책방 주인 95명이 부부동반으로 모였다. 저녁 만찬이 끝날 무렵, 헌책방 주인을 대표하여 A. 쇼팽 다르누빌이 말미에르에게 화답하는 짧은 연설을 한다. 다르누빌은 말미에르가 가장 큰 만족과 위안을 얻은 유일한 장소를 강조했다.

“그곳은 바로 그가 매일 거닐던 센 강변 좌안이었습니다. 바로 루브르, 노트르담, 생사뽈을 거치는 산책길 말입니다. 하지만 그가 매일 산책에 나섰던 까닭은 단지 그 경치나 길 때문이 아니었지요. 그건 바로 우리들의 헌책방 진열대와 책 상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살피고 또 살폈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살찌울 물건을 찾느라, 시간이든 고서든 정신없이 펼쳐 읽느라 여념이 없었지요. 그리고 비로소 뭔가를 발견하면 그는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여자 애서광이 적었던 까닭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여자 애서광은 드문 존재다. 물론 책 모으기에 몰입한 여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그 중에서도 1644년부터 1654년까지 스웨덴 여왕이었던 크리스티나(1626-1689)가 끈질긴 여자 도서수집가로 꼽힌다. 18세에 즉위한 크리스티나는 국립도서관을 만들라는 명을 내리고, ‘30년 전쟁’ 동안 스웨덴 장군들이 점령지에서 압수한 책들을 거둬들였다.

크리스티나는 희귀한 필사본을 구입하는 한편으로 프랑스 신학자 드니 페토, 네덜란드 법관 후고 그로티우스, 네덜란드 신학자 게르하르트 포시우스 같은 개인 수집가들의 컬렉션을 사들인다. 그녀는 마자랭 추기경의 사서였던 가브리엘 노데를 스톡홀름으로 불러들여 책을 관리하게 했다. 또 데카르트를 초청해 여왕의 개인교사로 삼기도 했다.



1654년 크리스티나는 이탈리아에 책을 구하려 간 자신의 대리인에게 이런 내용을 편지를 보낸다. “아름답고 희귀한 책이 있으면 일단 목록을 내게 보내시오. 하지만 무작정 사들이지는 마시오. 우선 진품(珍品)을 위주로 하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한 전기 작가에 의하면 크리스티나의 장서는 큰 방 네 개를 꽉 채웠다고 한다. 그녀는 인쇄본 외에도 적어도 8,000점이 넘는 필사본을 갖고 있었다. 여자 애서광이 적은 이유는 미국의 여성 도서수집가 메리 하이드 에클스(1912-2003)의 1990년 뉴욕에

서 열린 '15인의 여성 도서수집가들' 전시회 개막 연설에 잘 나타나 있다.

“누구에게나 다음과 같이 매우 흥미롭고도 의아스러운 질문을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5세기 동안 무려 6개국을 통틀어 보아도 여성 도서수집가들은 왜 이처럼 극소수에 불과했는가?’ 답은 분명합니다. 수집의 규모를 불문하고 열정적인 수집가가 되려면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 세 가지란 넉넉한 재산, 교육, 그리고 자유입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그 세 가지를 누릴 수 있었던 여성은 극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바뀌고 있습니다!”

로젠월드의 수집가를 위한 6가지 조언

시어스 로벅 사의 회장을 지낸 레싱 J. 로젠월드(1891~1979)는 1943년부터 1979년까지 미 국회도서관에 2,600권의 귀중본을 기증했는데 이는 도서관 역사상 최대의 기증이었다고 한다. “로젠월드는 책을 구하기 위해 벼룩시장이나 개인 가정에서 처분한 고물더미를 뒤지는 종류의 사람은 아니었다. 대신 그는 후한 값을 치르고 전문적인 서적 중개상이나 대리인을 통해 고서를 사들였다.”

로젠월드는 수집가들을 위한 6가지 조언을 남겼다. 그것의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자기만의 분야에 해박해져라.
2. 수집의 주제를 정하라.
3. 믿을 수 있는 중개상을 찾아라.
4. 남보다 한발 앞서 움직여라.
5.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

6. 꾸준히 감식안을 길러라.

하지만 로젠월드 자신도 이런 규칙을 늘 지키진 않았다. 예외가 있었다. 한번은 자신의 취향에 맞지 않는 물건임에도, 비용에 구애됨이 없이 그것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대리인에게 내린다. 그것은 1937년 12월의 어느 일요일, 로젠월드가 어느 고서 경매목록을 훑어보던 중 그의 눈에 띈 책이었다. 경매목록의 제533번 품목인 『트렌토 유대인들에 대한 재판 처리』는 15세기 트렌토의 유대인 거주지에서 유대인 18명이 처형당한 사건을 다룬 미출간 필사본이었다.

이 필사본이 독일 나치 정부 수중에 들어가면 반유대주의 선전에 악용되리라 판단한 로젠월드는 A.S.W. 로젠바흐 박사에게 가격을 불문하고 그 고본을 매입하도록 부탁한다. 당시 경매장에는 입찰이 끝난 뒤, 자신이 최고가를 불렀다며 재입찰을 요구한 여자가 있었다. 경매 주최측은 이 요구를 정중히 거절했다. “나중에 조사해 보니 문제의 여성은 오로지 533번 품목을 입수할 목적으로 파견된 독일 측 대리인이었다.”

새뮤얼 피프스의 개인장서론

새뮤얼 피프스(1633-1703)는 영국의 작가 겸 도서수집가다. 그는 1660년 1월 1일부터 1669년 5월 16일까지 쓴 『일기』의 저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피프스의 『일기』는 19세기에 발견되어 공간(公刊)되었다. 자녀가 없었던 피프스는 유언장에서 자신이 모은 방대한 분량의 장서를 조카에 물려주었고, 조카가 세상을 떠나면 케임브리지에 기증하기를 바랐다.

◎ 도서관이 알아야 할 출판과 책 이야기 ◎

여기에는 단서가 따랐다. “현 상태 그대로 남아 있어야만 하고, 다른 책이 한 권이라도 새로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 조건은 지켜졌다. 피프스의 장서는 케임브리지에서 무려 265년이 넘도록 다른 책의 투입을 단 한 권도 허락하지 않은 채 원 소유주의 바람대로 보존돼 왔다. 그런데 ‘피프스 문고’의 열람 제한을 둘러싼 논란이 빚어졌다. ‘피프스 문고’가 자리를 잡은 케임브리지의 모듈린 칼리지에서 ‘피프스 문고’의 열람 자격 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잡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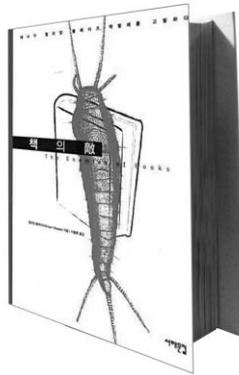
윌리엄 블레이즈는 『책의 적(敵)』(1880)에서 모듈린 칼리지의 자세를 이렇게 비판다. “소장 도서를 지나치게 애지중지하는 수집가들과 애서광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의 보물을 다음 세상으로 가져가지도 못할 거면서, 그저 꼭꼭 숨겨 놓기만 한다. 그렇게 숨겨 놓은 책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블레이즈는 ‘유명한 일기 작가 피프스의 오랜된 흥미로운 장서’를 대표적 사례로 꼽는다.

도서수집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개괄한 비망록에서 피프스는 “개인 장서란 그 주인의 독서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가장 작은 방에 얼마 안 되는 책을 갖추더라도’ 책의 주제, 형식, 언어 등이 가능한 한 다양해야 한다고 적었다.” 피프스의 장서는 정확히 3,000권이다. 피프스가 3,000권이야말로 “신사의 도서관에 가장 알맞은 숫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컬렉션

스티븐 캐리 블룸버그(1948~)는 현대의 책도둑이다. 블룸버그가 도서관 268곳에서 훔친 책은 2만 3,600여 권에 이른다. 그의 범행 대상이 된 도서관이 소재한 지역은 미국의 45개 주와 캐나다의 2개 주, 그리고 워싱턴 D.C.를 포함한다. 블룸버그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책을 절취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우선, 도서관의 어느 층에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열쇠를 입수했기 때문이다. 또한 어느 층에 승강기를 멈춰 세워 놓는 방법을 터득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개장시간이 끝난 도서관에 몰래 들어가, 희귀본을 수집 권씩 책 나르는 수레에 담아 승강기에 싣고 아래층으로 내려와 상자에 옮겨 놓았다가, 나중에 자동차를 몰고 와 실어 가는 수법을 즐겨 썼다. 책이 워낙 많아 트럭에 싣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는



〈『책의 적(敵)』 한국판 2005. 서해문집〉

데 블룸버그는 그 와중에도 지나가던 학생들의 도움을 받곤 했다.

그런데 블룸버그에게는 도서수집가로 발돋움하는 결정적 계기가 있다. “1980년의 어느 날, 미네소타 대학 도서관에서 나오려는 순간, 열람석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플라스틱 카드가 그의 눈에 들어 왔다.” 블룸버그가 훔친 그 대학 심리학과 조교수 매튜 맥규의 교직원 신분증은 또 다른 행운이 따라주었다. 맥규 교수와 블룸버그의 외모가 비슷했던 것이다.

전문 연구자를 사칭함으로써 블룸버그는 특

별 컬렉션이 소장된 건물에 마음대로 출입하는 호사를 누린다. 희대의 책 도둑이 활개를 친 배경으로 도서관의 영성한 보안 시스템과 관리자의 부주의를 간과하기 곤란하나, 블룸버그는 신출귀몰하는 재주가 있었던 모양이다. 듀크 대학의 학술서 담당 사서 존 L. 샤프 3세의 증언은 그러한 증거로 충분해 보인다. 블룸버그는 듀크대를 두 번 찾았고, 그 때마다 2주 정도 머물렀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당시에 경비장치가 작동하기에 몇 번인가 제가 한밤중에 도서관에 가서 확인해 본 적이 있었다는 것이었죠. 우리는 오히려 경비장치가 고장이라도 난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센서는 정상 작동 중인데 누가 왔다 간 흔적은 없었으니까요. 결국 센서를 모두 교체했는데도 여전히 움직임이 포착되었는데, 기껏 가서 확인해 보면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당시 그 사람이 거기 있었던 거죠.”

나는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라는 속설은 당치 않다고 생각한다. 이 책의 블룸버그 컬렉션을 다룬 장을 읽고 나서도 그런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 다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블룸버그의 경우는 예외로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훔친 것이지만 “도서관수집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책의 가치를 어떻게 가늠하는지 배운” 블룸버그의 능동적인 보관인 정신을 지지한다.

“나는 책이야말로 조용한 지혜의 원천이라고 생각했고, 불법적으로라도 그 책들을 방치된 상태로부터,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빼앗아서 잘 활용하고 싶었다. 그 책들을 지키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 책들을 보존하는 것이었으며, 나아가 어떠한 특권도 갖지 못한 젊은이

들과 나누는 것이었다.”

게다가 블룸버그는 열정적인 도서관수집가의 요건 세 가지를 두루 갖췄다. 그는 특별한 직업이 없었지만 수입은 일정했다. 할머니가 남긴 신탁기금에서 해마다 7만 2,000달러를 받았다. 그 덕에 블룸버그는 책을 맘껏 탐닉하는 자유를 누렸다. 고서에 대한 블룸버그의 지식은 재판정에서 바스베인스에게 건넨 한마디에 함축돼 있다. “솔직히 이 건물 안에서 ‘포인트’가 뭔지 알고 있는 사람은 당신하고 나, 둘 뿐일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젠틀 매드니스』라는 빙산의 아주 작은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